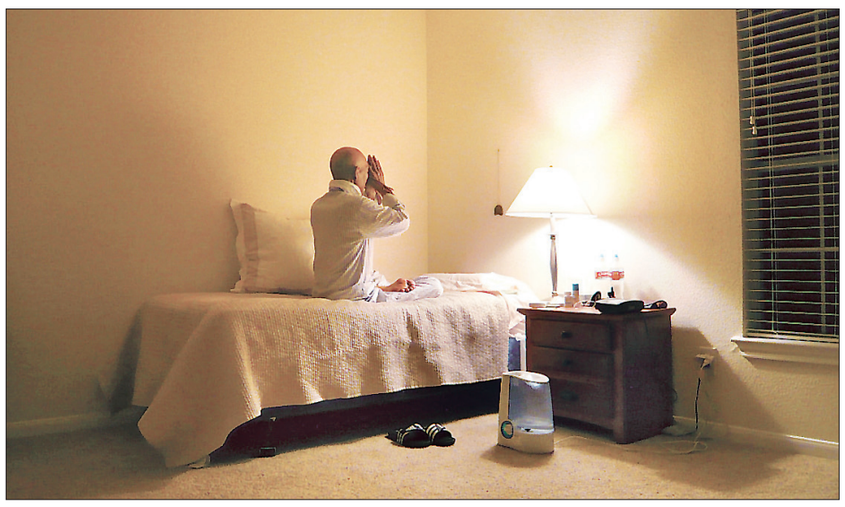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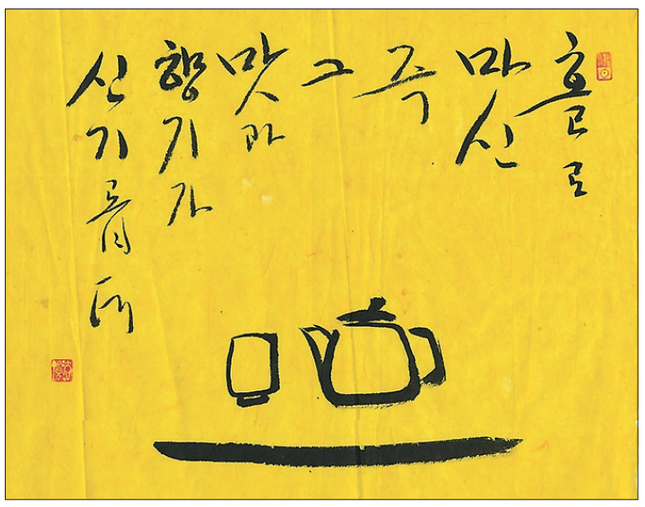
법정 스님 일상에 담긴 '무소유' 가르침

'법정 스님, 붓장난' 전시
1월 19일~3월 21일 열려
미공개 선묵 10점 공개돼
"무소유문학관 마중물 되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맏상좌 덕조 스님이 촬영한 법정 스님. 스님은 주위의 권유로 미국에서 폐암 수술을 받고 투병하던 중에도 기도를 잊지 않았다. 사진 제공=맑고향기롭게



법정 스님이 홀로 차 마시는 즐거움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 선묵 작품. 사진 제공=맑고향기롭게

"물을 움켜뜨니 달이 손안에 있고, 꽃을 만지니 향기가 옷깃에 스미네. 옛 선사의 노래.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건조한 정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네. 먹이 남아서 붓장난했네."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긴 법정 스님의 미공개 선묵(禪墨)과 육필 서한, 사진들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조 스님, 길상사 주지)는 1월 19일 서울 길상사 맞은편에 위치한 갤러리 스페이스 수퍼노말에서 '우리 곁에 법정 스님, 붓장난' 전시를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법정 스님의 열반 16주기를 맞아 스님이 남긴 '맑고 향기로운' 삶과 가르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앞으로 길상사에 건립될 '무소유문학관'의 마중물이기도 하다.

전시에는 법정 스님이 그린 선화 10여 점과 육필 서한 90여 점, 맏상좌 덕조 스님이 직접 찍은 사진 20여 점 등이 선보인다. 1970년대 봉은사 다래헌에 주석하던 시절 대학생 불자들과 주고받은 편지, 덕조 스님과 이해인 수녀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법정 스님의 다정다감함 그대로 담겨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순천 불일암에 있던 '빠삐용 의자'도 첫 서울 나들이를 했다.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서 땔나무로 만든 '빠삐용 의자'는 지난해 11월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덕조 스님은 "풍요의 시대에 참된 위로를 주는 향기,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남기신 '무소유의 향기'"라며 "이번 전시는 은사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저의 작은 기도이자 감사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스님의 자취를 느끼고자 길상사를 찾는 분들이 은사 스님의 사상과 문학을 가슴에 담고 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무소유문학관'을 건립하고자 원을 세웠다"며 "오늘 전시가 그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소유문학관'은 법정 스님의 육필과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느끼고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명상의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전시를 기획한 길정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사는 "이번 전시는 신도분들의 기증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며 "전시를 계기로 문학관에 소장될 스님의 흔적들이 더 많이 기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정 성균관대박물관 학예실장은 "법정 스님은 때로 자신이 쓴 글을 '붓장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의미의 집착을 비워 내고 글을 하나로 놀이로 환원하려는 실천적 태도"라며 "이번 전시는 '붓장난의 미학'을 되새기는 자리로, 스님의 사유가 품은 자유로움과 인간적인 온도를 새롭게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법정 스님의 친필 서한을 기증한 백경임, 유영숙, 송정숙 불자도 참석해 스님과의 인연을 회고했다. 백경임 불자는 "대학생불교연합회의 봉은사 수련회로 스님과 인연을 맺게 돼, 이후 자주 찾아뵙고 편지를 드렸다"며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편지들이지만, 더 많은 분들이 스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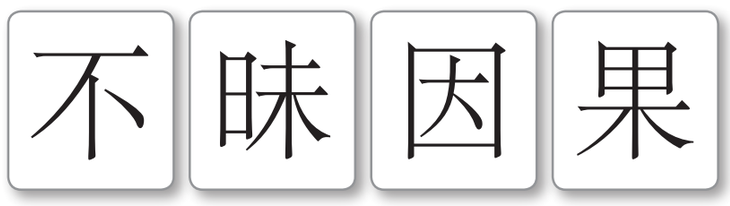
'우리 곁에 법정 스님, 붓장난' 전시는 3월 21일까지 계속된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과의 법칙

㉗ 불매인과(不昧因果)



우리 사회에는 학력·재력·권력을 두루 갖춘 이른바 '그럴듯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고 결국 몰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형을 구형받는 현실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 선한 행위에는 복이 따르고 악한 행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인과의 법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종교적 진리든 세속의 법질서든 행위에 따른 결과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만은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중국 선종 사서인 〈무문관〉 제2칙은 이러한 착각을 단호하게 경계한다.

백장 화상(749~814)이 법문을 할 때마다 한 노인이 늘 대중 속에 섞여 듣고 있었다. 대중이 흩어질 때면 그도 함께 물러났지만, 어느 날은 홀로 자리에 남았다. 백장이 그의 정체를 묻자 노인은 이렇게 답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섭불 시대에 이 산에서 수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큰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라고 물었고,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因果)'고 답한 탓에 오백 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았습니다. 이제 화상께서 한마디로 저를 제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는 다시 물었다. "큰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백장은 짧게 답했다. "인과를 어둡게 하지 않는다(不昧因果)."

그 순간 노인은 크게 깨달았다. 그는 절하며 말했다. "이제 여우의 몸에서 벗어났습니다. 산 뒤에 머물고 있으니 출가 사문의 예로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누구도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깨달을수록 인과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과를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이치를 분명히 알아 스스로의 행위를 삼간다.

〈맛지마니까야〉에서도 같은 가르침이 전해진다. 최상위 계급인 바라문만이 위대하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는 주장에 대해, 붓다는 이렇게 묻는다.

"만일 수드라(왕족 계급)가 살생하고 도둑질하며 거짓말하고, 이간질과 욕설을 일삼고, 탐욕과 악의를 품으며 그릇된 견해를 지닌다면, 그는 죽은 뒤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바라문이라고 다르겠는가?"

질문을 받은 바라문은 그러한 과보를 자신들 역시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불락인과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인과의 법칙 안에서 자유롭고 복되게 살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매인과! 엄숙하고 서늘한 일침이다. 함부로 행동하면 큰일 난다.

〈화순 불암사 주지〉

국립춘천박물관 명품 유산들 만나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큐레이터 전시 설명회 진행
1월 프로그램은 '유점사 종'



1월 '춘박 명품 톺아보기'에서 소개되는 유점사 종.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수경)이 새롭게 단장한 브랜드실 등을 중심으로 큐레이터 전시 설명회를 연중 개최한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올해부터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산책 프로그램 '춘박 명품 톺아보기'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한다"고 1월 20일 밝혔다.

강원 문화유산의 면면을 속속들이 소개하고자 기획된 '춘박 명품 톺아보기'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신설한 브랜드2실 '강원의 불교미술, 깨달음을 찾는 길'과 12월 새 단장한 브랜드존과 강원의 근세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마주하는 명품 불교문화유산 '선림원지 보살상'(보물), '삼척 흥전리 절터 정병'(보물), '유점사 종'으로 깨달음의 길을 찾아간다.

우리 품으로 돌아온 불교문화유산 '한송사 터 보살상'(국보)을 3월에, '제6사단 작전명령 제31호'(1950년 6월 25일)를 6월에 소개한다.

1월 톺아보기는 신설된 브랜드 2실의 '유점사 종'이다. '몸과 마음 그리고 시간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유수란 학예연구사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종의 기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춘박 명품 톺아보기' 프로그램 참가는 무료이며 당일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출강 및 통신 2026학년도 제35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5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202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문의 02)733-1959, 02)720-1836

백문이 불여일견 !

스님 자신이 기존 법당의 시설 마이크와 본사의 초간단 (디지털) 견본의 마이크를 양손에 잡고 번갈아가며 염불소리 테스트를 해 볼시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의 놀라운 소리 격차를 체험 후 귀 법당 기존시설의 ½가격으로 시설상담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로 단 한 곳도 고장 전화가 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390만원 이동식 방생용도 전문판매





현 판매 시설자 박 공 희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방송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